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20년 6월 29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97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미-중 신냉전, 기로에 선 한반도」 주제로 조선일보와 “아산-조선일보 웨비나” 30일 개최

- 아산정책연구원이 「미-중 신냉전, 기로에 선 한반도」를 주제로 “아산-조선일보 웨비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30일(화) 오전 09:00부터 10:30까지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될 예정이다.
- 이번 웨비나에서는 코로나 19 책임론을 비롯하여 무역, 경제, 기술, 안보, 인권 등 다층적 영역에서 미-중 간의 신냉전 양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방과 도전 과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지형에의 영향 △이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선택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 이번 웨비나에는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B. Steinberg)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하며, 강인선 조선일보 외교안보·국제 에디터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
 - 영어: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asaninst.org>), 유튜브 아산정책연구원 계정
 - 한국어: 조선닷컴 홈페이지(www.chosun.com), 유튜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계정

※ 관련 문의: 아산정책연구원 홍보실 박기정 차장(02-3701-7387), 임정희 전문원(02-3701-7397) / communications@asaninst.org

* 본 회의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영 동시통역은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계정을 통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